

# 일본점령기에 대한 필리핀의 역사인식 : 필리핀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민정\*

- I. 서론
- II. 20세기 전반기의 필리핀과 일본 관계
- III. 일본점령기에 대한 필리핀사 교과서 분석
- IV. 일본점령기에 대한 역사교육과 역사연구
- V. 결론

## I. 서론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구분되는 역사 경험과 사회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식민지배국이 스페인과 미국이라는 서구였기 때문에 필리핀의 종교와 사회제도, 문화 전반에는 외형상 서구적 요소가 깊이 침투하여 있다. 결과적으로 필리핀의 전통은 '필리핀화 된' 서구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식민지배 이전에는 중앙집권적인 단일 정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리핀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흔히 스페인의 도래로부터 시작된다. 외세의 식민지배와 토착사회에 대한 이의 영향력은 필리

---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핀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외세를 무조건 부정한다면 이는 곧 자국의 역사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필리핀 역사교과서에서 외세의 지배에 대한 서술은 이중적이거나 모호한 태도를 띠게 된다. 또한 국내 교육기관과 교육제도의 대부분은 스페인과 미국의 시기에 형성된 것이며 역사연구 역시 스페인과 미국의 자료 및 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국가의 관점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스페인과 미국 시기에 대한 민족주의적 입장의 역사 평가는 애매하게 행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리핀의 역사교과서는 식민지배의 장단점 모두를 언급함으로써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민족국가의 역사적 토양에 대해 교육하고자 한다.

그런데, 일본점령기에 대한 교과서의 역사 서술은 스페인이나 미국 시기와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대한 교과서의 역사 서술에서 일본의 관점은 거의 반영되지 않으며, 필리핀인의 관점에서 이 시기 전적으로 부정적인 역사경험으로 서술된다. 스페인 시기 역시 전반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이는 스페인이 필리핀에서 식민지배의 역사를 시작하였고 개종과 300여 년이 넘는 장기간의 통치를 통해 필리핀 사회 전반을 크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제 문제를 태동시킨 장본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 시기에 대한 평가도 세계전쟁의 와중에 단기간에(약 4년간) 경험한 일본점령기에 대한 평가만큼 부정적이지는 않다. 반면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방해한 악역을 수행하였지만 필리핀의 정치와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계몽적인 영향을 미쳤고 필리핀에게 독립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편이다. 즉, 스페인 및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필리핀 역사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외부 식민세력이다.

일본 지배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묘사에서는 항일 저항의 경험과 그 역사적 의의가 강조되며, 민족주의적 역사의식이 전면에 부각된다. 필리핀은 사실 스페인의 통치 말기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1896년) 독립은

동을 일으킨 나라이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의 성격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시기에는 뚜렷한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일본에 대한 게릴라의 항쟁은 민족주의 의식과 반식민 운동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강조된다.

이 글은 필리핀이 자신들을 지배한 외세 중 일본의 점령 시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중등교육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교과서는 학술논문과 달리 특정한 역사인식을, 즉 역사해석에 있어서 현 정치질서의 기원과 존립이유를 정당화하는 역사인식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식민지배를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대국가의 성립과 지속의 정당성은 외세의 침입과 지배, 이에 대한 자국민의 대응을 설명하는 특정한 입장으로서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학교 교육은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이 특정한 역사인식을 공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역사 교과서는 국민적 역사인식의 기본 내용을 제시한다. 교과서의 역사서술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논쟁의 여지를 가능한 축소하고 불일치한 역사적 입장들을 단순화하여 국가 역사에 대한 하나의 인식틀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국가(정부)와 국민은 다양한 차원에서 교과서적 역사인식과는 다르거나 상반되는 방식으로 일본과 관계하고 일본과의 경험을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교과서를 통해 일본점령기에 대한 필리핀 사회의 역사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필리핀 국가가 외세로서 일본을 규정하는 방식과 이유에 대한 대의명분과 그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우선 일본 점령 이전 일본과 필리핀의 관계 및 점령기의 주요 상황을 개괄한다. 이어, 중등교육 과정 필리핀사 교과서에서 일본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일본에 대한 부정적 묘사의 이유는 무엇인지, 일본점령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변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교과서의 역사인식은 학계의 일본점령기 평가와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 20세기 전반기의 필리핀과 일본 관계

### 1.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

일본인의 필리핀 이주는 19세기 중반부터 가시화되지만 20세기 초까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sup>1)</sup> 필리핀에서 사는 일본인 대부분은 상인이었으며,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개중에는 필리핀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진 이들도 있었고 실제로 일본의 우익단체는 필리핀의 반 스페인 저항세력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등 비밀스럽게 독립운동을 돕기도 하였다. 19세기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인 조직 카티푸난(Katipunán)의 기록에 의하면 지도자들은 일본에 사절을 보내어 무기와 탄약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며, 마닐라를 방문한 일본 제독을 만나 독립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천황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Agoncillo 2002, 8장, 9장).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미국의 식민지화를 지지하거나 일본이 미국이나 영국과 함께 통치하는 방식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Taling 2001, 32; Yu-Jose 1999, 17).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 관심은 1920, 30년대 일본의 남쪽 바다 지역인 “남양(南洋, nan'yo)”에 진출하려는 의도와 함께 표명되지만, 남양이라는 지리적 경계 속에서 필리핀은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1940년에 일본정부가 남양이란 용어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대동아 공영권(大東亞共榮圈,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의 해당 국가 목록에서도 필리핀은 빠져있기도 하다.<sup>2)</sup> 지리적 위치로 볼 때 필

1) 1896년 필리핀의 일본인 거주자는 16명, 1898년에는 24명, 1899년에는 93명이었다(Yu-Jose 1996, 67).

2) 전쟁 이전 일본의 농상공부는 남양을 “아시아 대륙의 동남쪽과 호주 대륙 사이에 위치한 수많은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된 지역”이라고 애매하게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의 군사적 진출을 결정한 1940년 7월 27일 일본 제국군 위원회

리핀은 일본의 남진을 위한 발판에 해당되어 전략적으로 중요하였기 때문에 남양이나 이를 대신한 대동아 공영권의 대상에서 필리핀을 제외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필리핀은 미국의 통치하에 있고 미군이 주둔한 곳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연합군 가담을 막고자 대동아 공영권과 관련된 공식 문건에서 필리핀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 문건과 달리 일본내의 신문과 선전물에서는 대동아 공영권 내에 필리핀이 포함되어 있었다(Yu-Jose 1999, 156-7). 제국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필리핀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을 숨긴 것과 달리 필리핀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제적 관심은 동남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1903년 미국이 중부 루손(Luzon) 지역에 바기오 시(Baguio City)와 주변 도로건설을 계획하면서 일본인 100여 명이 집단이주를 해 온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12년에는 3,654명, 1919년에는 9,874명, 1935년에는 21,468명으로, 20세기 초반 필리핀 거주 일본인 수는 급격히 증가한다. 일본인의 반 수 이상은 민다나오(Mindanao)의 다바오(Davao)를 중심으로 마닐라 삼(hemp) 플랜테이션에서 일했으며, 기타 상업, 어업, 매춘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였다. 일본인 기업수도 1915년의 48개에서 1938년에는 353개로 급증하여 전쟁 직전이 되면 필리핀 내 일본경제활동은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1907년과 1917년 사이 동남아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 30%가 필리핀에 있었으며,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40년에는 64%에 달하였다. 일본으로의 송금액수 규모에서도 필리핀은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Yu-Jose 1996, 69-71). 20세기 전반기의 무역관계에서도 필리핀과 일본은 서로가 중요한 대상이 된다. 일본은 필리핀의 수산업을 주도하였고, 1929년이 되면 미국에 이어(비록 격차는 크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되고, 1930년대로 들어서면 필리핀에 대

---

와 일본 정부 사이의 회의에서도 인도차이나, 홍콩, 화란령 인디아(오늘날의 인도네시아), 프랑스령 남태평양 섬은 언급되지만 필리핀에 대한 언급은 없다 (Yu-Jose 1996, 65).

한 일본의 수출(주로 섬유)은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주로 금속, 목재, 마닐라 삼 등)을 초과하게 된다(Taling 1999, 239). 즉, 전쟁 직전 필리핀과 일본의 직접적 관계는 민간부문의 이주와 경제투자가 주를 이루며, 필리핀은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공산품 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1935년 필리핀은 미국인 고문관을 둔 상태에서 10년 뒤의 독립을 약속 받고 케손(Quezon)을 대통령으로 한 자치령(Commonwealth)을 수립하면서, 케손의 민족주의적 정책 방향으로 인해 일본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이에 일본은 자국의 문화를 필리핀 내에 들여와 선전하는 문화 정책을 도입하고, 친일 사회단체 조직, 친일 신문 발행, 의원 포섭 등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Yu-Jose 1999, 9장).

전반적으로 볼 때 20세기 들어 본격화된 일본의 필리핀 진출은 점령 직전까지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일본정부의 정책적 고려보다는 일본인 개인의 차원에서 행해졌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은 미국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필리핀을 침공하고 1942년 1월 마닐라가 투항하면서 일본의 본격적인 군사지배와 점령은 시작되는데, 이는 1945년 2월 마닐라가 미국에 의해 재탈환될 때까지 3년이 넘게 지속된다.

## 2. 일본의 필리핀 점령기 약사(略史)

1941년 12월 7일 새벽 2시,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폭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다. 일본에게 필리핀은 미군과의 전쟁을 위한 전장이면서 동시에 대동아공영권 구축을 위한 남진론의 대상지역이었기에 공격의 목표가 되었다. 즉 일본에게 있어서 필리핀은 이종의 목적이 수행되어야 하는 지역이었고,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일본점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되었다.

일본은 진주만 공습 4시간만에 필리핀의 마닐라 북쪽 클라크(Clark) 공군기지에 대한 폭격을 시작으로 필리핀 전역에 공습을 가하기 시작했다. 12월 22일에는 일본 주력군이 필리핀에 상륙하였고 바로 마닐라를 공격하였다. 이에 12월 26일, 당시 필리핀의 국가원수이자 군사고문관이던 미국의 맥아더(MacArthur)장군은 마닐라 보호를 위해 “무방비 도시(open city)”를 선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폭격은 멈추지 않았고 1942년 1월 3일 일본은 드디어 마닐라를 점령한다. 일본에 대항하던 필리핀군은 1941년 7월 26일을 기하여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한 미국동군(USAFE : The United States Army in the Far East)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맥아더 휘하의 13만 병력 중 10만 명을 차지하였으나, 대부분은 훈련과 장비가 미비한 신병 병사들이었다.

일본의 필리핀 점령 직전인 1941년 12월 24일 당시 필리핀 자치령의 케손 대통령과 가족, 각료는 마닐라 앞 바다의 코레히도르(Corregidor) 요새로 피신하였다가, 일본의 필리핀 전역 점령이 확실해진 이듬해 2월 20일에는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Mindanao)로 다시 피신하고 호주,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워싱턴에서 망명생활을 시작한다. 한편 일본의 마닐라 점령 이후 미국동군 소속 필리핀군은 바타안(Bataan) 반도로 퇴각하여 전쟁을 계속한다. 그러나 1942년 3월 11일 맥아더 사령관은 루즈벨트 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호주로 이동하고, 4월 9일에는 바타안의 군대가 일본에 항복하며, 5월 6일에는 마침내 맥아더의 뒤를 이은 웨인라이트(Wainwright) 사령관이 정식으로 일본군에게 항복하게 된다.

일본은 마닐라를 점령하자마자 일 군정의 성립과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필리핀을 해방시키고 독립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필리핀을 1942년 9월 동경에 설립된 대동아부(Great East Asia Ministry)의 행정지배하에 두고 통치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1942년 2월 필리핀의 중앙 정부를 새로 개편하였고, 1943년 6월 18일에는 일본에 협력하는 필리핀인으로 구성된 단체인 신필리

핀 봉사대(KALIBAPI : Kapisanan sa Paglilingkod sa Bagong Philipinas)를 통하여 필리핀 독립준비위원회(PCPI : Preparatory Commission for Philippine Independence)를 조직하였다. 이 위원회는 9월 4일 필리핀 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9월 20일에는 신필리핀 봉사대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25일에는 국회를 통해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라우렐(Laurel)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0월 14일에는 정식으로 제2차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라우렐은 일본점령의 폐해를 막기 위해 위성정부의 대통령이 된 것이지 그 자체가 친일본적 성향을 대변했던 인물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전쟁 막바지인 1944년 9월, 일본은 필리핀 정부에게 대미, 대영 선전포고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라우렐은 공식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군을 징집하는 것은 거절하는 식으로 일본의 협조와 압력에 소극적으로 행동하였다(Ambrosio 1952, 181; 권오신 2000, 276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 필리핀 전역에서는 필리핀군 출신에서부터 농민군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저항하는 게릴라전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호주에 있는 맥아더에게 필리핀의 근황과 일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후일 맥아더의 레이테(Leyte) 입성과 필리핀 탈환의 보조자 역할을 하였다.

일본의 필리핀 점령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보르네오와 달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증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을 통해 연결되어 있던 필리핀과 세계 경제와의 고리를 끊고 자신과의 경제적 연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였다(Taling 1999, 238). 한편 필리핀의 사회 부문은 일본의 산업화와 전쟁 수행을 위한 천연자원의 수탈과 군수물자의 공수로 심한 피해를 보았다. 주요 생산물의 생산과 분배는 군정 당국의 통제체제하에 놓였으며, 일본회사를 중심으로 군 식량과 기타 물자조달을 위한 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장치들은 생산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Taling 1999, 242). 전쟁 말기에는 식량 부족, 노동력 징발, 전쟁으로 인한 파괴, 군인들의 약탈, 게릴라 협력자

색출과정에서의 잔화 행위 등으로 일반인의 생존은 심하게 위협받았다(Taling 1999, 243-5; Orendain 2001).

일본 또한 점령국 필리핀 국민의 서구지향성을 비판하고 정신적 각성을 촉구하면서, 교육과정 개편을 위시한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는 일본이 수행하는 전쟁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려는 것이었으며 필리핀의 생활문화에 내재한 서구식민지배의 영향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일본어가 영어대신 교육언어로 채택되었으며 교과서에 대한 검열이 행해졌다(Taling 1999, 159-169). 한편으로는 일본의 영어 사용 금지로 따갈로그 신문과 소설, 드라마가 부활하고 성행하여 지식인층의 따갈로그어(Tagalog) 사용이 증가하기도 하였다(Santos 2001, 10-22). 라우렐 대통령은 민족주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따갈로그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하고 교육행정기관의 구성원을 필리핀인으로 충원하기도 하였지만, 일본의 제국주의적 의도를 상쇄하지는 못하였다.

### III. 일본점령기에 대한 필리핀사 교과서 분석

#### 1. 필리핀의 역사교육과 일본

필리핀 교육체계에서 역사 일반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인 10~11세에 시작되지만, 필리핀사에 대한 교육은 고등학교 1학년인 13~14세에 이루어진다.<sup>3)</sup> 그리고 필리핀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으로 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아시아사를, 3학년에서는 세계사를 공부한다. 따라서 필리핀 학생들은 세 가지 역사적 관점에서, 즉 필리핀의 일본 점령경험과 아시아 속의 일본, 그리고 세계사 중 제2차 세계대전 부분

---

3) 필리핀의 초등교육과정은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6년 과정이며,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나뉘지 않은 고등학교(high school) 4년 과정이다. 즉, 필리핀에서는 대학진학 이전까지 모두 10년의 교육을 받는다.

에서 일본을 공부하게 된다.

이상의 세 가지 관점 중 아시아 사에서 소개되는 일본은 전통 문화와 미학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화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세계사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전개과정과 전쟁 전후 세계질서 속에서 다뤄지며, 미국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지배를 실현한 막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이지만 필리핀에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필리핀사 교과서는 일본 점령의 역사 자체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해당 부분의 분량은 세계사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이다. 여기서 일본은 아시아사 교과서에서와는 달리, 필리핀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물자를 약탈하고 살상을 행한 전적으로 부정적인 점령국으로 묘사되고 있다.

필리핀사 교과서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목표 및 필리핀 식민역사의 특징과 관련된다. 학교교육에서 교과서의 실제적 영향력은 한편으로는 정부가 상정한 교육의 일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실에서 교사가 다루는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필리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1935년 헌법에서 국가는 무료 초등 공립교육과 시민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학교 교육은 “도덕적 인성, 개인의 규율, 시민의식, 직업능력을 발달시키며 시민의 의무를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935년 헌법 14조 5항). 1973년 헌법에서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에 대한 사랑을 함양하고 시민의 의무를 가르치며 도덕성과 개인 규율, 과학적이고 기술적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사랑의 항목이 첨가된다(1973년 헌법 15조 7항 4절). 한편 2월 민주혁명 이후 개정된 1987년 헌법에서는 교육의 목표는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함양하고 인간애를 고양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역사발전 속 국민영웅의 역할에 감사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고 윤리적 정신적 가치를 강

화하고 도덕성과 개인규율을 개발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고무하며 과학적이고 기술적 지식을 넓히고 직업능력을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제시된다(1987년 헌법 14조 3항 2절).

즉, 1935년 독립임시정부 헌법에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조 없이 시민교육이라는 교육의 목표가 강조되다가, 1973년 마르코스(Marcos) 정권하의 계엄령 헌법에서부터는 국가에 대한 사랑이 교육의 목표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조는 1987년 아키노(Aquino) 민주 정부하의 헌법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애국심과 민족주의의 고양, 국가영웅에 대한 존경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명시된다.

필리핀의 근대사는 곧 식민지배로 점철된 역사이며 식민지배국의 문화와 제도는 필리핀의 전통과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에서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필리핀의 중등교육청(BSE: Bureau of Secondary Education)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교육지침에서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배 시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은 장황하고 긴 편이다. 스페인 시기에 대해서는 스페인의 진입과 관련된 사건, 식민지배의 목적, 종교와 침략을 통한 지배의 평가, 토착문화가 식민화의 도구로 사용된 점, 스페인에 의해 들어온 가톨릭의 특징, 식민지배와 가톨릭 개종의 영향 분석, 식민행정부의 성격과 필리핀인의 권리 및 생활 조건 등을 가르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시기에 대해서는 미점령기 이후에도 계속된 독립운동, 미 식민정부의 목표, 미국이 도입한 정치·경제·사회·문화 프로그램, 필리핀 민족주의가 억압된 요인에 대한 이해, 필리핀 독립과 관련된 법률, 정당의 형성, 필리핀의회 성립의 중요성, 독립열망을 촉진시킨 요인 등에 대해 가르치도록 권고하고 있다(Yu-Jose 2002, 2).

그러나 일본 통치시기 역사교육에 대한 지침목록은 지극히 짧다. 여기에는 독립의 지연, 일본의 필리핀 침략의도의 결과 속, 일본에 의해 수립된 정부의 구조, 필리핀인의 저항운동, 필리핀 독립임시정부의 귀환, 전쟁의 참상과 피해 등이 포함된다. 스페인의 330여 년이라는 지배

기간과 4) 미국의 48년이라는 통치기간에 비해 3년이 조금 넘는 일본 점령 시기가 짧게 다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일본점령을 전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으로 묘사하는 것은 동 시기 식민지배 세력인 미국을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방해한 또 다른 식민지배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게 독립을 약속하고 정부기구와 교육 등 근대제도를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반면, 일본은 필리핀이 열망하던 독립을 얻으려는 순간에 침략하였고 결국 필리핀 역사에서 가장 해악을 끼친 외국으로 그려진다.

## 2. 필리핀사 교과서의 내용 분석

필리핀에서 사립학교는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며,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만이 교육매체위원회(IMC: Instructional Materials Council)의 검열을 받는다. 교과서 선택과 관련된 이러한 상대적 자유의 일차적 원인은 예산부족으로 정부가 통일된 국정 교과서를 무상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Yu-Jose 2002, 3). 한편 교육과 문화·스포츠부(DECS: Department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에서는 공립학교 교과서의 저자에게 지침서를 제공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출판이나 가격과 관련된 것이며 내용에 대한 상세한 규제방침은 존재하지 않는다.<sup>5)</sup> 아래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 내용을 비교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1980년대 말 이전 필리핀사 교과서의 특징을 개괄하고자 한

4) 스페인 국왕의 명으로 마젤란이 필리핀의 세부 지방에 첫 발을 딛은 해는 1521년이지만, 스페인의 식민지배로 이어지는 레가스피 원정대가 도착하고 세부와 첫 조약을 맺는 해는 1565년이며, 마닐라를 건설하고 식민지배가 본격화되는 해는 1570년이다. 스페인의 지배는 미서 전쟁에서의 패배와 필리핀내의 독립 운동에 의해 1896년에 끝난다. 따라서 스페인의 지배기간은 시작 시기를 언제로 보는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5) 교육매체위원회 사이트인 <http://www.deped.gov.ph/imcs> 참조.

다. 필리핀사 교과서 속의 일본점령기 서술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분석은 1980년대 말 이후의 교과서에 국한하고자 한다.

### (1) 1980년대 말 이전의 교과서<sup>6)</sup>

필리핀 역사서술의 특징 중 하나는 스페인 시기의 역사는 스페인 자료 및 연구에, 미국 점령기의 역사는 미국의 자료 및 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리핀 역사가가 쓴 역사도 스페인과 미국 학자들이 쓴 문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식민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다. 최근에는 이를 시정하여 필리핀의 시각으로 역사를 서술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점령기 역사에 대한 서술은 이와 달리 일본 자료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자 스스로가 직접 전쟁을 경험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역사서술을 하기도 한다. 필리핀에서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전후 시기 교과서 집필자인 알립(Eufronio M. Alip), 아곤시요(Teodoro A. Agoncillo), 몰리나(Antonio Molina), 자이데(Gregorio F. Zaide)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필리핀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파 연구자이면서 급진적이고 민족주의적 관점을 가진 저명한 역사가인 아곤시요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널리 사용된 두 권의 필리핀 역사 교과서, *Ang Kasaysayan ng Pilipinas* (필리핀 역사)와 *Pilipinas kong Mahal, Isang Kasaysayan* (나의 사랑 필리핀의 역사)를 저술하였다. 여기서 일본점령기는 게릴라 운동과 마닐라 해방과 같은 주요 사건의 사이에 간략히 끼여있으며, 일본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물자부족, 사회혼란상이 주로 그려진다. 일본에 협조한 필리핀 공화국 구성 성격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치지도자들이 말로만 협조하였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협력을 하지 않았

6) 이 항의 전반적 내용은 Yu-Jose(2002, 3-6)를 참조하였다.

다는 점이 강조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필리핀사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해석이다. 한편, 그는 미국에 의한 일본의 원폭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필리핀사가 아닌 일본사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시 필리핀에서 공부를 한 국내파 연구자인 자이데는 모두 무려 67권의 책을 출판하였는데, 이중 많은 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역사교과서였다. 그의 경우 사건의 서술내용은 아곤시요와 유사하나 논조는 아곤시요와 달리 냉정한 입장을 견지한다.

한편, 이들 모두의 저작에서는 힘든 시기에 대처하는 필리핀인 특유의 유우머 감각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필리핀인들이 물자가 부족하여 무용지물이 된 일본정부의 화폐를 “장난감 돈(Mickey Mouse Money)”라고 불렀다든지, 일본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필리핀 독립 준비위원회(PCPI: Preparatory Commission for Philippine Independence)”를 “제발 필리핀 독립을 무효화시켜주세요(Please Cancel Philippine Independence)”로 바꿔 부르며 조롱하였다고 소개한다.

이시기 저자들은 다른 식민시기에 대한 해석과 달리 일본의 자료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일본점령기의 역사서술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필리핀인의 관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 일본적 관점이 서구와 유럽의 시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서구적 관점을 모방한 엘리트적 시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교과서 서술이 보다 더 민족주의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2) 1980년대 말 이후의 교과서

필리핀의 일본점령기 역사서술에서 주목되는 사건과 그에 대한 내용, 묘사의 논조는 독립 이후 현재까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1986년 2월 혁명으로 민주화바람이 불면서 필리핀어 사용이 강조되고 민족주의적 역사관이 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본점령기에 대한 1980년대 말 이후 해석에서 주목되는 변화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일본의 허수아비 정부였던 2차 공화국에 대해 조심스런 비판 또

는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쟁과 일본점령기 동안 필리핀 국가영웅의 활약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조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심어주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역할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출판된 고등학교 필리핀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일본점령기에 대한 일반적 묘사, 1980년대 이후 강조되는 민족주의적 해석, 최근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이 된 교과서는 다음의 세 종류이다. Abeleda, Alberto S. Jr.(1987),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 A History of the Philippines*, Quezon City : Curriculum Materials, Inc.; Lacsamana, Leodivico Cruz (1990), *Philippine History and Government*, 2nd ed., Manila : Phoenix; Olavides-Correa, Monina, et al. (2000), *Lupang Hinirang : Kasaysayann at Pamahalaan* (선택받은 땅 [필리핀]: 역사와 정부), Pasig : Anvil. 해당 시기에 대한 소제목은 “일본 점령하의 필리핀”(Abeleda 1987), “필리핀에서의 일본점령기”(Lacsamana 1990), “일본의 점령”(Olavides-Correa et al. 2000)으로 세 교과서 모두 서로 비슷하며, 해당 분량은 교과서 전체 페이지수의 6~8%에 해당된다.

#### 1) 일본점령기에 대한 일반적 묘사

일본의 갑작스런 침공: 일본은 이미 1932년에 만주를 점령하였고 1940년에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를 다음해에는 프랑스령 전체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1941년 12월의 필리핀 공습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필리핀 자치령 정부는 마닐라에서 공습대비 훈련을 시행하고 대피소를 지었으며 학교에서는 응급처치를 가르치고 시민구조대를 조직하기도 하였다(Abeleda 1987, 142). 그러나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손쉽게 승리를 쟁취하였고 이어 미군기지가 있는 필리핀 곳곳을 공습하여 한번 더 미국을 놀라게 하였으며, 다음날에는 마닐라에도 폭탄을 투하하였다. 교과서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은 이

러한 태평양 전쟁의 서곡에 필리핀 공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선전포고 없이 시작된 전쟁이라는 점에 초점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령 대통령인 케손과 미극동군의 사령관인 맥아더가 코레히도르 요새로 피신하고 필리핀군이 소속된 미극동군이 바따안 반도로 퇴각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제시된다.

**일본군의 잔인함:** 마닐라를 점령한 일본군의 잔인함은 “죽음의 행진(Death March, *Martsa ng Kamatayan*)”을 통해 극적으로 묘사된다. 이는 일본군이 바따안에서 항복한 필리핀군과 미군을 중부 루손 딸락(Tarlac)으로 이동시키면서 물과 식량도 없이 100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도보로 행군하게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7만여 명의 군인 중 만 명의 필리핀군인과 1,200 명의 미군이 사망하였다(Lacsamana 1990, 168). 특히 최근 출판된 필리핀어 교과서에서는 포로들의 참혹한 행렬 모습을 담은 두 장의 사진과 행진로 지도까지 실으면서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Olavides-Correa et al. 2000, 229-230). 일본군의 잔인함이 드러나는 다른 장면은 전쟁에 진 일본군이 마닐라에서 퇴각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무방비상태의 시민 수 천명을 학살하였고, 수녀를 포함한 많은 여성을 강간하였고, 마닐라 남부 지역의 주요건물 대부분을 파괴하였으며, 10만 명 이상의 시민 사상자를 만들어 내었다(Abeleda 1987, 154).

**경제조건의 악화:** 일본점령기에 일반 필리핀인의 생활고는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설명된다. 음식, 의약품, 기타 생필품은 고갈되었고 주요 도시에서는 식량배급이 시행되었다. 농민들은 일본군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농경지는 방치되었고 일본군은 민가를 약탈하여 경제적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Abeleda 1987, 148). 전쟁의 발발 자체만으로도 농경지, 은행과 기타 경제기구, 공공기관, 도로와 다리, 교회가 파괴되었고 국가 경제는 그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사유재산의 대부분은 파괴되

어 가축 수는 전쟁 전의 절반으로 줄었고, 선박, 기차, 자동차 역시 전쟁의 피해와 징발로 남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Lacsamana 1990, 175).

허수아비 정권인 2차 공화국: 일본의 지원으로 성립된 임시정부와 내각, 그리고 이어지는 헌법제정과 2차 공화국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설명된다(Abeleda 1987, 145). 1943년의 헌법 제정은 미국에 의해 제정된 1935년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필리핀 헌법이 아니었다(Abeleda 1987, 147). 같은 해 2차 공화국의 성립은 1896년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guinaldo)에 의해 선포되었던 공화국에 이어 두 번째의 공화국 출범이지만 다수의 국가들은 이를 무시하였다(Abeleda 1987, 147). 일본 점령 시기의 독립과 공화국 성립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부정하면서도 명확하게 비판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논조로 서술된다.

해방과 독립에 대한 미국 의존: 일본에 협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애매한 태도와 달리, 미국과 맥아더에 대한 태도는 명백하게 우호적이다. 필리핀 국민들은 미국과 케손 정부의 귀국을 바라면서 반일적 태도를 견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Abeleda 1987, 148). 항일 게릴라전은 과거 필리핀군 출신 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호주에 있는 맥아더의 명령 휘하에 있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다양한 게릴라 세력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맥아더가 이들을 결집하여 효과적인 군대로 통솔”하였다고 설명한다(Abeleda 1987, 149). 일본의 필리핀 침공과 이에 대한 필리핀의 저항은 결국 일본과 미국의 대결구도로 그려지며, 여기서 미국을 대변하는 맥아더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모든 교과서는 필리핀을 떠나면서 맥아더가 했다는 “나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엔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과, 다시 돌아와 레이메 해변에 상륙하면서 했다는 “나는 돌아왔다”라는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교과서에는 코레히도르 망명시절 케손 대통령과 함께 찍은 맥아더의 사진과

레이떼 해변에 상륙하는 맥아더의 사진이 실려있다(Abeleda 1987, 144, 152; Lacsamana 1990, 166, 172-173; Olavides-Correa et al. 2000, 228, 230, 240-241).

## 2) 새로운 민족주의적 해석

1980년대 말 교과서에서 새로이 강조되는 민족주의적 시각은 특히 2차 공화국과 게릴라전에 대한 서술에서 나타난다. 2차 공화국 구성원 정치인들은 일본에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 필리핀 근현대 정치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sup>7)</sup> 교과서에서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세 종류의 교과서에서도 2차 공화국의 일본 협력에 대해서는 1980년대 말 이전의 교과서 입장을 견지한다. 2차 공화국은 단지 “일본산 필리핀 공화국” 또는 “일본의 허수아비”였지만, 여기에 참가한 필리핀 정치가들은 전쟁 중의 평화와 질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협력했을 뿐이라는 것이다(Lacsamana 1990, 170-171). 한편, 최근 발행된 필리핀어 교과서에서는 일본에 대한 협력이 부끄러운 일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하지만, 그들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많은 필리핀인들에게, “협력자(kolaboreytor)”라고 불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점령기에도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 바르가스(Vargas), 로하스(Roxas), 라우렐(Laurel) 등과 같은 2차 공화국의 성원들은 협력자라고 불린다. 이들이 일본을 돕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

---

7) 예를 들어, 임시정부의 행정위원회 각료 중 내무부 장관을 맡은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S. Aquino)는 마르코스 독재에 대항하다 암살당한 베니그노 아키노 주니어(Benigno Aquino, Jr.)의 아버지이다. 독립정부의 대통령을 맡았던 호세 라우렐(Jose P. Laurel)은 마르코스의 강력한 후원자였으며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내각의 실세 중 한 명이던 살바도르 라우렐(Salvador Laurel)의 아버지이다. 문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클라로 렉토(Claro M. Recto)는 일관되게 미군기지 반대입장을 견지한 민족주의 노선이며 1940년대 이후로 줄곧 상원의원을 맡았다.

었지만, 국민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려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였다. 레나토 콘스탄티노(Renato Constantino)와 같은 역사가들은 일본을 위해 일한 것은 필리핀 동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본의 명령, 착취, 선전을 매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협력자들은 일본이 두렵지 않았을까? 협력자가 된 것은 아마도 그들 자신의 안녕과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했을 것이다. …… 우리는 여러 질문에 대해 숙고해보아야 한다. 점령을 도운 필리핀 정부자료들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다른 필리핀인들 또는 전범자들에 비해 그들이 일본을 더 많이 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협력자들이 점령을 도왔다면, 필리핀인들은 왜 협력자들을 도왔으며 자신들을 정복한 미국인들을 위해 봉사하였는가?(Olavides-Correa et al. 2000, 244-245)

위의 인용문의 내용은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2차 공화국 정치인들의 ‘협력’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을 일본에 대한 ‘협력자’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 그리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급진적 역사가인 콘스탄티노의 관점을 공개적으로 인용한 점은 다른 교과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다.

일본에 대한 저항과 관련하여 기존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인물은 대법원 판사로서 일본에 협력을 거부하고 사형 당한 호세 아반산토스(Jose Abad Santos)이다. 이어서는 마닐라가 점령되고 필리핀군이 소속된 미국동군이 항복한 후에도 계속되는 게릴라들의 군사적 저항이 강조된다. 주요 게릴라 지도자들은 과거 필리핀군의 소속이었으며 작전 수행에서 호주로 피신한 맥아더 장군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다(Abeleda 1987, 145, 149; Lacsamana 1990, 167, 172). 반면 대부분의 교과서는 일본에 대한 저항세력 중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농민세력인 HUKBALAHAP(*Ang Hukbo ng Bayan Laban sa mga Hapon*: 항일인민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본 협력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최근 필리핀어 교과서에서는 이들의 활약을 소개하고 있다.

후크(Huk: HUKBALAHAP의 약칭)단은 공산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단

채였지만 일본에 저항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후크단은 일본에 대한 저항뿐 아니라 재화의 재분배를 지향하는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신념과 행동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전쟁 중에 후크단의 도움을 지대하였다. 그들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지역을 해방하였다. 이들은 일본에 대해 정찰을 수행하고 수집한 정보를 일본에 대항하는 미국인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해방시킨 지역에는 지방정부를 수립하기도 하였다(Olavides-Correa et al. 2000, 244-245).

이 교과서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필리핀의 다양한 대응”이란 절에서 “HUKBALAHAP”이란 소제목 하에 후크단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자인 루이스 타룩(Luis Taruc)의 독사진도 실고 있다. 반면 다른 교과서에서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항일전사 호세 아발 산토스는 후크단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할 뿐이다. 그리고 후크단의 소개에 이어 “협력자의 문제”라는 소제목 하에서 위에서 언급한 2차 공화국을 구성한 정치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3) 일본점령기의 사회문화상

분석 대상인 세 교과서 중 한 권은 “일본의 선전”이란 제목으로 일본 점령으로 인한 필리핀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소개하면서 언론통제와 학교에서의 일본어 사용과 같이 지배를 위한 일본의 정책 만을 언급하고 있다(Lacsamana 1990, 171). 다른 한 권에서는 “필리핀의 충성을 얻기 위한 노력”이란 제목으로 일본에 의한 지방자치 실시와 마닐라 행정 권역의 확대 과정, 미국지명의 개편, 일본어 교육, 일본 가톨릭 신부의 파견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사건들이 소개된다(Abeleda 1987, 145-146). 전반적으로 볼 때 1980년대 이후의 교과서도 과거의 교과서와 비슷하게 일본점령기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거나 일본의 통치의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다시 예외가 되는 것은 최근의 필리핀어 교과서인데, 여기서는 일본점령

기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의 변화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점령기의 “문화에서의 변화”라는 소제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된다.

- 무엇보다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근면과 노력, 절약 등에 가치를 부여하는 교육을 하였다.
- 필리핀어와 일본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였다
- 일본과 일본의 관점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 수업을 시작하였다
- 신체단련과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매일 아침 방송하였다.
- 예술 분야에서, 필리핀 토착 전통과 이념을 고양하도록 설득하였다. 이는 문학과 음악, 드라마, 그림 등에서 주요 주제로 채택되었고 점차 영화에도 반영되었다.
- 도로의 이름을 일본어로 바꾸었다.
- 미디어 전반을 일본군이 통제하였다.
- 모든 개인적 서신의 비밀은 보장되지 않았다.
- 미군이나 게릴라의 방송이 전달되지 않도록 라디오 작동체계를 바꾸었다.
- 각 마을마다 일본인의 눈과 귀가 되어줄 공동체 조직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Olavides-Correa et al. 2000, 240).

이러한 언급은 기본적으로, 다른 교과서처럼, 일본점령기의 교육, 매체, 조직 관련 정책이 일본의 통치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치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와 관점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서와 다르다. 이 교과서는 또한 다른 교과서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내용과 사진도 실고 있다(Olavides-Correa et al. 2000, 235).

#### IV. 일본점령기에 대한 역사교육과 역사연구

필리핀의 역사서술에서 일본점령기는 스페인이나 미국의 지배 시기와 달리 역사 기술에 일본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기간이다. 결과적으

로 필리핀사에서 일본점령기는 필리핀의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으며 다른 식민지배의 시기보다 외부 통치세력인 일본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서술이 가장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볼 때 피플 파워(people power)에 의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1986년의 경험은 필리핀의 식민경험에 대한 역사교과서의 관점과 기술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일본점령기에 대한 서술은 이미 민족주의적 관점이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 말을 전후로 하여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2000년도 이후에는 필리핀어를 사용하고 민중적 관점을 보다 보강한 역사교과서가 등장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세 교과서에서 일본 점령 기간 중 주요 사건에 대한 서술의 비중과 논조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침략자 일본' 대 '해방자 미국'이라는 대조는 세계 제2차대전과 일본 점령 역사 서술의 기본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무엇보다 물자약탈과 인명 살상에 기인한 것이며,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필리핀군을 지휘한 맥아더의 영웅적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일본점령기에 대한 이러한 교과서의 서술은 일본에 대한 협력의 의미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 학계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우선 필리핀 정치인의 일본 협력에 대해 교과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필리핀 국민을 위한 행위였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평가하는데 반하여, 학계의 입장은 보다 민족적이거나 보다 급진적 관점에서 필리핀 정치엘리트의 한계를 비판한다(Arcilla 1984, 136-137; 콘스탄티노 1985, 31-3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 라우렐(Jose Laurel),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 클라로 렉토(Claro Recto) 등 일본점령기 협력자들은 필리핀 정치 속에서 민족주의적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즉 민족주의 정치엘리트들이 일본의 협력자였다는 모순이 제기되는데, 이는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지배세력의 영향력이 직, 간접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협력이란 오히려 반미의 입장을

견지하는 민족주의적 선택일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급진좌파의 역사가로 분류되는 콘스탄티노 조차도 “라우렐의 반식민주의적 입장과 민족 자존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시도는 확고하였다. …… 단 그의 비극은 일본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의 태도 때문에 그의 민족주의적 정서와 다른 타당한 호소가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라고 평가한다(Constantino 1978, 124-125; Santos 2001, 45에서 재인용). 즉 교과서와 달리 학계에서는 일본에 대한 협력과 민족주의간의 미묘한 긴장과 갈등, 분파적 성격에 대해 주목한다. 이에 교과서와 달리 학계의 평가에서 일본에 협력한 정치엘리트들의 한계는 주요 논쟁점으로 부각되며, 이들의 민족주의적 동기로 인하여 협력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결과적으로 애매해진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한편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일본에 협력 한 정치엘리트의 극단에는 종교적 색채를 띤 민중저항세력으로서 일본에 협력한 삭달주의자(*Sakdalista*)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언급 역시 교과서와 학계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삭달주의자나 후크단과 같은 급진적 민중 조직에 대해 게릴라 세력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당시 일본의 지배와 저항의 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감하지만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Arcilla 1984, 141-145; 콘스탄티노 1985, 53-66). 일본점령기 급진적인 민중세력의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히 삭달주의자에 대한 평가는 후크단보다 훨씬 더 민감한 주제이다.

삭달주의자는 스페인 시기 독립운동을 이끈 카티푸난(Katipunan)의 뒤를 잇고 필리핀공산당(CPP: 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리핀 근대사 중 반식민 민중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그러나 일본점령기에 복면을 쓰고 일본군에게 누가 게릴라 세력인지를 지목하는 역할(소위 *Makapili*)을 담당하기도 하였다(Santos 2001, 33-35).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다루지 않으며, 최근에 발간된 필리핀어 교과서에서 이들은 일본

점령기 이전의 종교적 색채를 띤 저항세력으로만 소개되며 일본점령기의 협력자 역할은 언급되지 않는다. 반면 미극동군의 지휘체계 하에서 일본에 저항하였던 후크단의 활동은 소개하면서도, 이들과 필리핀군과의 적대적 입장이나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즉 학계의 일본점령기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외세력 중 어느 쪽에 저항하는 것이 더 민족주의적인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며, 필리핀 민족주의의 복잡하고 애매한 맥락이 분석의 초점이 된다. 그러나 교과서 서술에서 필리핀 민족주의의 복잡하고 애매한 맥락은 보다 단순화되며, 미국보다는 일본에 대한 저항이 보다 민족주의적 정통성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전 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최근 필리핀어로 발간된 교과서는 필리핀 민족주의의 복잡하고 애매한 성격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고 있다. 교과서에는 처음으로 등장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 — 일본의 허수아비 정부였던 2차 공화국에 대해 조심스런 비판 또는 성찰을 요구한다. 전쟁과 일본점령기 동안 (미국이 아닌) 필리핀의 저항을 강조하며 여기에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을 포함한다. 일본의 각종 사회문화 정책에 대해 일본의 통치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필리핀인의 사고와 가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한다. — 은 그런 점을 보여준다. 즉, 필리핀사 교과서에서 일제 점령기에 대한 민족주의적 설명은 단순하고 일관되게 제시되지만, 1980년대 이후 학계에서 필리핀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다면화되고 심화되며 성찰적 측면이 강조되는데, 최근 교과서에는 이는 학계의 연구성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교의 역사 교육에서 교과서의 사용은 교사의 사용방식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필리핀 학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가 자유롭게 사용되며, 교사는 신문기사나 일본점령기에 대한 조부모의 체험 듣기, 역사 상황 연구 등 다양한 보조자료와 교육방식을 사용한다(Yu-Jose 2002, 9). 따라서 학교에서의 일본점령기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시행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교과서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일본점령기에 대한 필리핀사 교육에서는 경제체계가 와해되고 미국이 약속한 독립이 지연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시기였음이 강조된다. 일본에 대한 일관되게 부정적 서술은, 다른 식민 국가였던 스페인과 미국의 통치경험에 양면적 입장이나 애매한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 스페인과 미국에 비해 일본의 통치는 짧았으며 상대적으로 필리핀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못하였고, 일본이 강조한 대동아 공영권의 당위성은 수백 년간의 서구 식민경험을 통해 근대국가를 형성한 필리핀에게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하였다. 일본은 군사적 침략에는 성공하였지만 기타 사회문화 체계, 특히 필리핀의 역사관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필리핀 내부에는 일본점령기를 직접 체험한 세대가 생존해 있고, 역사가들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 시기를 서술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교과서에서 일본점령기는 스페인이나 미국과는 달리 전적으로 부정적인 역사경험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시각이 가장 두드러지는 역사서술의 맥락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은 20세기 전반기 필리핀의 민족주의적 정치가들이 실상은 일본을 동경하고 모방하고자 했으며, 일본점령기 독립정부의 구성원들은 반민족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학계의 평가와 모순된다. 이러한 모순은 필리핀 국민교육이 모델로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배의 역사가 근대국가의 형성기반이 되는 필리핀 사회에서 민족주의에 내재된 복잡하고 미묘한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80년대 말 이후 필리핀 사회의 민주화 바람이 일본점령기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독립의 열망과 저항의 역사를 보다 강조하면서 민족주의적 논조는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 이 연구에서 직접 분석한 세 종류의 교과서 중 가장 최근인 2000년도에 발간된 필리핀어 교과서에서는 특히, 일본점령기 2차 공화국을 구성한 정치엘리트들을 협력자의 부류로 분류하여 재평가하고, 공산주의 색채를 띤 항일혁명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이 주입하고자 하였던 근면과 정신무장 등의 가치를 언급하는데, 이는 교과서에는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된다. 즉 최근의 필리핀 역사 교과서에서는 주류 정치세력의 시각이 아닌 급진적 역사관도 포괄하고 정치 이외의 다른 사회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민족주의적 시각을 보다 다면화하고 심화하며 성숙한 태도로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성찰하려는 노력이 감지된다.

필리핀에서 다양한 교과서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 지 의문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교과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책은 새로운 교과서 내용의 기술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을 가진다. 고등학교 역사 교육이 국민과 시민으로서 자국의 역사를 숙지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청소년 시기에 동일한 역사정보와 역사관을 공유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기부터 역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접하는 것은 보다 성숙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부수적으로 파악된 필리핀의 역사교육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간단히 덧붙이고자 한다. 단일한 점령 교과서를 사용하는 한국의 국사 교육의 경우 일본점령기 당시의 잡지나 신문을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자신의 세대와 부모세대의 일본문화 선호나 혐오 내용을 비교하는 식으로 역사교육의 자료와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필리핀의 역사 교육이 아시아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한국의 역사 교육에 시사적이다. 세계화와 함께 더욱 강화되는 지역화의 추세는 한국 국민에게도 중국과 일본이 아닌 다른 아시아 지역, 즉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근동 지역 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에 한국에서도 서구중심의 세계사나 중국 중심의 동양사를 넘어서, 다양한 아시아 이웃에 대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1. 역사교과서

- 국사편찬위원회. 1996. 『고등학교 국사 (하)』. 교육부.
- Abeleda, Alberto S. Jr. 1987.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 : A History of the Philippines*. Quezon City : Curriculum Materials, Inc.
- Lacsamana, Leodivico Cruz. 1990. *Philippine History and Government*, 2nd ed, Manila, MM : Phoenix.
- Olavides-Correa, Monina, et al. 2000. *Lupang Hinirang : Kasaysayann at Pamahalaan* [선택받은 땅(필리핀) : 역사와 정부]. Pasig : Anvil.

### 2. 일반문헌

- 권오신. 2000. 『미국의 제국주의: 필리핀인들의 시련과 저항』. 서울: 문화과 지성.
- 콘스탄티노. 1985. 김호철역. 『필리핀 민중운동사』. 서울: 동녘. (Constantino, Rento. 1978. *The Philippines : The Continuing Past*. Quezon City : The Foundation for Nationalist Studies)
- Agoncillo, Teodoro A. 2001. *The Fateful Years : Japan's Adventure in the Philippines, 1941-1945 vol. 1*. Quezon City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Agoncillo, Teodoro A. 2002. *The Revolt of the Masses : The Story of Bonifacio and the Katipunan*. Quezon City : University of the

- Philippine Press.
- Ambrosio, Adoracion D. 1952. *A Historical Study of the Japanese-Sponsored Republic of the Philippines*. Manila : MS.
- Arcilla, Jose S., S. J. 1984. *An Introduction to Philippine History*. Quezon City :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Constantino, Renato ed. 2001. *Under Japanese Rule : Memories and Reflections*. Quezon City : Foundation for Nationalist Studies, Inc.
- IMC (Instructional Materials Council) Secretariat, Dept. of Education, Philippines <http://www.deped.gov.ph/imcs> (검색일 : 2003.06.20).
- Orendain, Joan. 2001. "Children of War." Renato Constantino ed. *Under Japanese Rule : Memories and Reflections*. Quezon City : Foundation for Nationalist Studies, Inc.
- Santos, Angelito L. 2001. "Gleanings form a Cruel War." Renato Constantino ed. *Under Japanese Rule : Memories and Reflections*. Quezon City : Foundation for Nationalist Studies, Inc.
- Tarling, Nicolas. 2001. *A Sudden Rampage : The Japanese Occupation of Southeast Asia, 1941-1945*.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Yu-Jose, Lydia. 1996. "World War II and the Japanese in the Prewar Philippines."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7(1) 64-81.
- Yu-Jose, Lydia. 1999. *Japan Views the Philippines, 1900-1944*. Quezon City : Ateneo de Manila University.
- Yu-Jose, Lydia N. 2002. "Teach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Philippine Schools." Paper presented at the Asian Studies Conference Japan (ASCJ) 2002 (2002년 6월 22-23일, Sophia University).

ABSTRACT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e Philippines:  
A Case of the Philippine History Textbook in Secondary Education**

**KIM Minjung**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Japanese occupation is illustrated in the school textbook as a period of destroyed economic system and delayed national independence. In fact, the Japanese occupation is evaluated as the most negative experience with a foreign power ruling the Philippines since 16th Century. The negative perception towards Japanese occupation contrasts with attitudes towards Spanish or American rules that are evaluated to ambivalently effect on the Philippine society. As a result, the sector on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e school textbook provides the sample context of historical description for the nationalistic approach.

In general, the content of the Philippine history textbook has changed little during 20th century, but some changes went after the February Revolution of 1986. The recently published Tagalog textbook, among the three textbooks, which I have analyzed in this paper, clearly emphasizes the zeal for independence and the resistance against Japan and provides more detail evidences for these. For the first time, this textbook reevaluates political elites

who were members of 2nd republic as collaborators, introduces guerilla forces colored by communism as the crucial part of anti-Japanese troop, and mentions Japanese efforts to infuse their cultural values such as diligence and mental armament into the Philippine society.

On the other hand, an academic understanding on the Japanese occupation provides a more complicated evaluation on some issues, especially related to nationalism. For example, academia has inquired into topics such as how Filipino nationalist politicians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fact, admired and tried to imitate Japan; and how the Cabinet of puppet govern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could be classified nationalist, rather than the anti-nationalist but into. It is natural that evaluation of historical events between textbook and academic writing differ, and that textbook as the model text for educating citizens is limited in elaborating explanations.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between textbooks and academic writing reflect the subtle sentiment of nationalism in the Philippines, in which the colonial experience itself is the basis of nation-state building process.

Keywords : Japanese Occupation, Nationalism, Colonial Experience,  
Collaborators, School Textbook, The Philippines